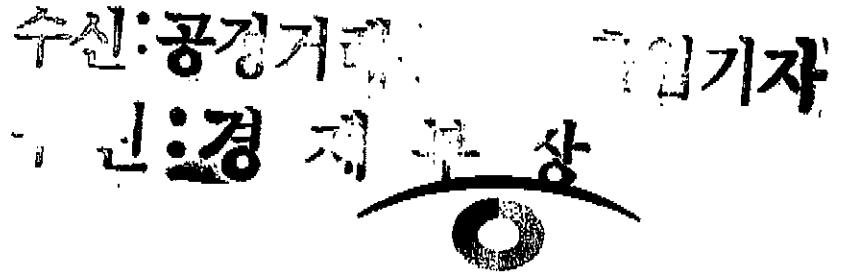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8월 12일(목요일) 조간
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.



공정거래위원회

작성과	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
작성자	과장 유재운, 사무관 나기호
전화번호	직통)503-9012 구내)4848

다단계판매업자의 2003년도 주요 정보 공개

□ 公正去來委員會[委員長 姜哲圭]는 「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」의 시행에 따라 102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·후원수당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함

- ▶ 다단계판매 시장의 2003년도 총매출액은 2조7,521억원임
- ▶ 2003년도 말 현재 총 4,459,857명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함
- ▶ 다단계판매회사들은 2003년 한해 9,103억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함
 - 총판매원 중 1,608,178명이 후원수당을 수령함
 - 총판매원 중 2,851,679명은 후원수당을 지급 받지 못함
- ▶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에 공개
 - 업체별로 후원수당 편차가 존재하나, 법정 한도가 있으므로 큰 편차는 발생하기 어려움
 -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총액은 총매출액(부가가치세 포함)의 35%이내
 - 다른 업체에 비해 1인당 후원수당이 상당히 높은 업체는 소속 판매원의 1인당 판매액이 다른 업체 소속 판매원의 판매액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경우임

□ 공개배경 및 경과

- 방문판매법에는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」를 시행(2004.3.23.)함으로써 공개대상 정보, 정보공개의 방법 등을 구체화 함

□ 정보내용 해석에 대한 당부

-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 보다는 개별 업체의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후원수당에 편중된 관심으로 인해 후원수당총액을 특정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곡해 하여서는 안됨

○ 매출액 상위 10개업체

순위	업 체 명	매 출 액 (백만원)	후원수당 (백만원)	등록판매원수 (천명)
1	한국암웨이	1,054,800	334,257	1,085
2	제이유네트웍스	364,244	132,213	126
3	하이리빙	254,758	79,444	366
4	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	117,259	43,667	509
5	엘트웰	97,291	30,498	460
6	고려한백인터내셔널	83,891	27,040	465
7	엔에스이코리아	77,165	25,636	96
8	센라이더코리아	70,608	24,151	53
9	아이쓰리샵	65,685	19,169	94
10	한국허벌라이프	60,379	18,286	61

3. 판매원

(1) 등록 총판매원수

- 2003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446만명으로 2002년도 말 기준 593만명 보다 147만명(△24.8%) 감소함
- 순위별로 보면, 한국암웨이(108만4천명),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(50만 9천명), 고려한백인터내셔널(46만5천명) 순인 것으로 나타남

(2)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

- 2003년도 한해 161만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함(2002년도 213만명)

- 영업활동의 적극성, 지급받는 수당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각종 경제적 이익 등 수당을 받은 모든 판매원을 포함함

- 총판매원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는 약 36.1%임

- 순위별로 보면, 한국암웨이(42만명),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(26만8천명), 하이리빙(18만명) 순으로 나타남

4. 후원수당

(1) 후원수당 지급총액

- 2003년도 한해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9,103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, 이는 2002년도의 1조2,435억원 보다 3,332억원(△26.8%)이 감소된 액수
 - 매출액의 감소와 더불어 대부분 업체의 후원수당총액이 감소함
- 순위별로 보면, 한국암웨이(3,343억원), 제이유네트웍(1,322억원), 하이리빙(794억원)의 순으로 매출규모 10대업체와 큰 차이 없음

(2) 후원수당 지급분포도

- 개별 업체별로 아래의 표(후원수당 지급분포도)에 의해 각 단계에 따른 후원수당 총지급액과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을 공개함

- *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'총판매원 기준'과 '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기준' 2개의 형태로 공개

(1년 기준)

	후원수당 총지급액	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
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1% 미만 판매원		
상위 1% 이상- 상위 6% 미만		
상위 6% 이상- 상위 30% 미만		
상위 30% 이상- 상위 60% 미만		
상위 60% 이상- 상위 100%		
합계		

- '후원수당을 받지 않은 판매원 포함 총판매원'을 기준으로 한 지급분포도에 따르면, 매출규모 20대 업체에서 판매원 1인이 1년간 받은 후원수당 평균액은 다음의 범위에서 분포

「상위1% 미만 판매원」	: 3,940천원 ~ 58,790천원
「상위 1% 이상- 상위 6% 미만」	: 160천원 ~ 7,150천원
「상위 6% 이상- 상위 30% 미만」	: 3천원 ~ 447천원
「상위 30% 이상- 상위 60% 미만」	: 0원 ~ 54천원
「상위 60% 이상- 상위 100%」	: 0원 ~ 2천원

5. 통계자료 해석시 소비자 및 판매원의 주의사항

※ 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소비자 및 판매원은 개별 업체의 자료 해석시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

- 별첨으로 제시된 매출액, 후원수당 등 특정 항목의 순위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피하고 개별 업체가 제공하는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
 - 단순히 후원수당 지급액이 많다고 하여 곧 우량 업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
 - 최근 3년간 '회사의 이력 변경정도'가 빈번한 업체의 경우 해당 대표자나 임·직원의 경영 안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함
 - 청약철회와 관련한 '반품 요청 대비 처리 비율'이 높을수록 소비자 또는 판매원 보호가 비교적 양호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음
- '후원수당 지급분포도'는 판매원을 후원수당 수령액 순위대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분포시킨 후 그 비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수당총액과 수당평균액을 산정한 것임

○ 후원수당 관련 정보 해석시 특히 주의가 요구됨

- 다단계판매부문 매출액은 전적으로 판매원들의 소비와 재판매로 이루어지므로 판매원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수준이 달라짐
-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므로 '1인당 판매액'이 같을 경우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훨씬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

○ 다단계판매회사 및 소속 판매원이 공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
6. 기대효과

- 공정위의 이번 정보공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, 후원수당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, 다단계판매시장에 있어 투명성·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
- 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, 이로써 불법 업체의 시장 퇴출과 건전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
- “후원수당/판매원수”(판매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)라는 단순 산정방식을 지양하고, “후원수당 지급분포도”를 공개항목으로 추가하여 각 직급별 후원수당을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함

※ 별첨 : 1. 다단계판매업체의 현황(2002년도 및 2003년도)

2. 개별 다단계판매업체의 상세정보 예시

3. 개별 업체별 상세정보는 「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-행정정보공개-각종 조사 및 자체 점검결과」를 참조